



헬무트 요하흐
Helmut Johach

휴머니스트로서의 삶, 시대 진단과 정치 참여

20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태어나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에리히 프롬의 사유들은 그의 저서들이 전세계로 팔려나간 것을 고려해 보면 이제 고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전은 보통 자신이 속했던 시대를 초월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새로이 발견되고 재조명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전작품의 어떤 측면은 현대성을 떨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에리히 프롬의 현대성 – 최초의 접근

프롬은 자신을 시대를 초월한 고전적 저자로는 결코 보지 않았다. 그의 처녀작인 《자유로부터의 도피》(이 저서로 프롬은 미국에서 단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변에 유명해졌다)에서 나치즘을 다룬 장황은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었다.¹⁾ 마찬가지로 《소유냐 존재냐》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데는 1970년대에 막 시작된 환경논쟁을 수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반하여 《사랑의 기술》은 프롬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즉흥적으로 가볍게 쓴 책인데, 어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체로 인류의 영원한 주제를 다룬 덕에 전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프롬의 주제들이 갖고 있는 현대성을 시장에서의 성공만을 기준으로만 파악한다면 자칫 그의 사상의 핵심을 놓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초창기 《사회연구》지에 실린 논문에서부터 후기 작품인 《인간 파괴성의 해부》와 《소유냐 존재냐》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작품을 하나의 통일체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프롬이 한 사회에 있어서 전형적인 인간의 성격, 즉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결정짓는—대부분은 무의식적인—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양하게 적용되고 확대되고 수정되면서 그의 작품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식의 분석적 사회심리학 방법이다.

하지만 에리히 프롬은 시대를 진단하는 능력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학자와 임상치료사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는 유대계 독일인이라는 그의 태생적 요소로부터 비롯되기도 한 것으로서, 1933년 이후의 그의 저서에 어느 정도 암시되어 나타나 있다. 1950년대 이후의 프롬의 폭넓은 활동은 그가 인류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꼈던 외적(정치적)·내적

1) 1941a, GA I, p.338 이하.

(심리적) 변화를 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적극 대처한 결과이다. 프롬의 현대성은 그가 지적이고 계몽주의적 전통에서 있으면서, 동시에 따뜻한 인간애를 갖고 있었던 동시대인이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일찍부터 평화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포괄적인 참여 민주주의를 옹호했다. 그의 휴머니즘적 종교관은 그가 20세기의 여러 재앙에 직면해서도 절망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임상치료사로서, 저자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정치적으로 사회에 적극 참여하게 만든 힘의 원천이었다.

유대계 혈통과 이민자의 운명

에리히 프롬은 190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정통 유대교 부모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청년시절에 그는 성경과 탈무드를 탐독했으며 한때는 율법학자가 되려고까지 했다.²⁾ 프롬은 이미 1920년대 중반에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아 유능한 정신분석가이자 후에 그의 부인이 된 프리다 라이히만과 함께 정통 유대교로부터 멀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계속하여 유대인의 뿌리를 부인하지 않았다. 훗날 그가 발전시킨 많은 사유 중에는 젊은 시절 참여했었던, 네헤미아 노벨³⁾을 중심으로 한 모임에서 비롯된 것들이 적지 않았다. 유대적 분위기의 이 모임에는 레오 뢰베탈⁴⁾의 말을 빌리자면 ‘철학과 약간의 사회주의·정신분석·신비주의 등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⁵⁾ 하이

2) R. Funk, 1983, p.21.

3) Nehemia A. Nobel : 1871~1922. 독일의 철학자이자 유대교 라비.

4) Leo Löwenthal : 1900~93. 독일의 사회철학자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창립 멤버. 문학과 문화에 대한 비판사회학의 선구자.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텔베르크에서 그에게 탈무드를 가르쳤던 살만 라빈코프는 프롬이 마르크스의 글들을 읽고 사회조사연구소에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작업을 통해 초기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모든 분야를 초월한 유물론’⁶⁾을 발전시키기 이전에 이미 프롬에게 사회주의적 영향을 강하게 끼친 인물이다. 젊은 프롬이 ‘극단적인 경제적·정신적 민주주의’⁷⁾를 옹호한 동유럽 유대인들의 하시디즘⁸⁾ 운동에 열광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프롬은 이러한 가계적 혈통, 개인적 연계, 그리고 강한 정신적 영향으로 볼 때 프롬은 유대교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성장했었던 현실배경과 정치적 조건 역시 유대교만큼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프롬이 본격적으로 인식의 폭을 넓히기 시작한 시기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왕정시대를 지나 유대인의 법적 평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였다. 인플레이션과 물질적 궁핍이 만연했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초창기에는 반유대주의가 증가했지만, 그 이후 1933년까지 특히 문화적 분야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유대인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⁹⁾

그러나 그의 전기에도 나와 있듯 독일계 유대인이자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정신분석가인 에리히 프롬은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직후에 바로 독일을 떠나야 했다. 이 사건이 그에게 미친 개인적 영향은 거의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¹⁰⁾ 처음엔 제네바로, 그

후 1934년에는 뉴욕으로 이민 간 것을 단순히 그의 행동반경이 넓어진 것으로만 여겼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프롬은 나치즘으로부터의 도피로 인해 당시까지 이론 학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인간적 관계들도 단절된 것으로 생각했다. 이민생활 역시 그에게 아무런 상처를 남겨주지 않을 리 없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 부모를 남겨둔 채 홀로 떠나야 했고, 그의 아버지는 1933년 12월 사망했다. 프롬이 이민을 떠난 이후에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난 적이 있었는가는 확실치 않다. 1941년에야 비로소 프롬은 영국을 거쳐 뉴욕으로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1959년까지 생존해 있었다.¹¹⁾ 1938년에 있었던 독일의 유대인 박해사건 이후에 어머니를 독일에서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을 사회조사연구소에 요구했으나 그것이 거부되었던 일은 프롬이 훗날 호르크하이머¹²⁾, 폴록¹³⁾ 등과 멀어지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아도르노¹⁴⁾와는 이미 프랑크푸르트 시절 그가 프롬과 뢰벤탈을 ‘직업적인 유대인’¹⁵⁾이라고 비난한 이후로부터 사이가 멀어져 있었다. 프롬이 프라다 라이히만과 이혼한 직후인 1944년에 재혼한 두 번째 부인 헤니 구를란트Henny Gurland 역시 프롬과 마찬가지로 독일계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될 필요가 있다. 구를란트는 나치를 피해 달아나던 때에 생긴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1952년 사망했다. 프롬이 개인적인 대화나 흔치 않았던 회고담 속에서

5) L. Löwenthal, 1980, p.18.

6) W. Bonß 및 N. Schindler, 1982, p.31.

7) E. Fromm, 1989b [1992], GA XI, p.112.

8) Chassidism : 18세기 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성숙일여聖俗一如의 신앙을 주장하는 종교적 혁신운동.

9) N. T. Gidal, 1997, p.348 이하.

10) J. Hardeck, 1992, p.243 이하.

11) R. Funk, 1983, p.69.

12) Horkheimer : 1895~1973.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과학자. 195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폴록, 아도르노와 함께 사회조사연구소를 재설립했다.

13) Friedrich Pollock : 1894~1970. 독일의 철학자.

14) Theodor Adorno : 1903~69. 독일의 철학자로 사회학·심리학·음악학에 대한 저술활동도 펼쳤다.

15) R. Wiggershaus, 1986, p.298.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구를란트를 거의 언급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이 프롬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국수주의의 극복

프롬의 생애와 신념을 연결시켜 볼 때 프롬 자신이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¹⁶⁾를 초래했던 나치의 인종주의 정책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보편적이고도 모든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휴머니즘’에 대한 그의 사상은 아마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프롬 스스로는 민족 간의 평화와 조화에 대해 그가 그토록 열렬히 추구한 것은 이미 1차대전 이전에 탐독한 성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민족 간의 보편적인 평화와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열두 세 살 되던 즈음부터 나를 감동시켰다. 평화와 국제주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그 당시 내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결부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유대인 소년이었다. 당시 가끔 반유대적인 행위들도 경험하게 되었는데, 심할 때는 양측이 서로 상대방을 이방인 취급하고 노골적으로 차별하기도 했다. 내가 남들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며 유별나게 행동하던 소년에서 벗어나고픈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그러한 편협한 사고방식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든 인간에 대한 형제애와 보편적 평화를 바라는 예언자적 비전보다 더 흥분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당시 또 무엇이 있었겠는가?¹⁷⁾

16) Holocaust :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

프롬은 이미 젊은 시절에 성경과 유대교의 유산을 통해 민족 간의 조화와, 나아가 인류는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수주의와 인종주의를 ‘근친상간’과 ‘우상숭배’¹⁸⁾가 당시의 사회적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집단적 나르시시즘’¹⁹⁾과 죽음애호증적 ‘몰락 증후군’²⁰⁾이라고 공격한 프롬의 과격성은 무엇보다도 나치 시대에 겪은 그의 정치적 경험을 고려해야만 비로소 올바르게 설명될 수 있다. 필자는 프롬이 손실로부터 덕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즉, 프롬은 편협한 국수주의, 그리고 그로 하여금 독일에 대한 충성심을 포기하게 만든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응으로서 박애주의를 생각해 낸 것이다.

프롬은 영어에 능통하게 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앨라배마 출신의 미국 토박이인 애니스 프리먼 Annis Freeman과 세 번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결코 진정한 고향처럼 느끼지 못했다. 물론 그는 미국에서 비정통과 정신분석가로,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유명한 강사로, 또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사회비판서들의 저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미국식 삶의 방식’은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낯선 것이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회적 타협주의, 그리고 마케팅 지향성²¹⁾과 ‘사이버네틱 인간’²²⁾에 대한 그의 강한 비판은 주로 미국의 예로부터 도출된 것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거주하며 많은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으로도 높게 인정을 받았던 세 번째 정착지 멕시코에서도 프롬은 결과적으로는 아웃사이드로 남았다.

17) E. Fromm, 1962a, GA IX, p.40.

18) E. Fromm, 1955a, GA IV, p.45.

19) E. Fromm, 1973a, GA VII, p.182.

20) E. Fromm, 1964a, GA II, p.236.

21) E. Fromm, 1947a, GA II, p.47 이하.

22) E. Fromm, 1973a, GA VII, p.317 이하.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그가 일생 동안 갖고 있었던 것은 한 국가에 정주하더라도 그곳에 자발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는 ‘유태적 정체성’이었다. ‘각 개인 안에는 전체 인류가 있으며, “인간의 조건Conditio humana”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고, 이는 지능·재능·크기·피부색의 원천적인 차이 점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러하다’²³⁾는 프롬의 보편적 인간에 대한 휴머니스트적인 믿음은 무엇보다도 그 유태적 정체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내전이나 인종청소, 또 심각한 인권침해 등에서 나타나는 국수주의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독일의 ‘새로운’ 국민감정에 대한 현재의 논란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국가적·인종적 모순의 극복이라는 프롬의 생각은 그 현대성을 조금도 상실치 않고 있다.

에리히 프롬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몇몇 신문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데나워²⁴⁾, 에르하르트²⁵⁾, 슈트라우스²⁶⁾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독일의 전후 개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 때 프롬은 특히 오데르-나이세 국경²⁷⁾의 불인정, 비상사태법의 의결, 독일 군대의 ‘퇴색되어 가는 군사적 경향’ 등을 비판했다.²⁸⁾ 그는 죽기 바로 직전에도 <독일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관하여Über die

23) E. Fromm, 1964a, GA II, p.222.

24) Konrad Adenauer : 1876~1967. 독일의 정치가로, 1949~63년 총리로 재임.

25) Ludwig Erhard : 1897~1977. 독일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 1949년 아데나워 정부의 성립과 함께 경제장관으로 입각하여, 1963년 아데나워에 이어 총리가 되었다.

26) F. J. Strauß : 1915~ . 독일의 정치가. 2차 세계대전 후 약 30년간 기독교 사회연합CSU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

27) Oder-Neiße line : 2차 세계대전 후 독일과 폴란드 간의 새 국경으로, 소련과 폴란드가 정한 국경선.

28) E. Fromm, 1966h, GA V, p.13 이하; 1990n[1965], GA XI, pp.493-498.

Beziehungen zwischen Deutschen und Juden>(1978)라는 글을 통하여 자신이 극도로 비판한 서독의 정치적 상황과 ‘독일계 유대인’이었으며 휴머니스트인 마르크스, 프로이트, 아인슈타인이 지닌 의미를 서로 비교했다.²⁹⁾ 이런 의미에서 프롬 스스로는 독일계 유대인들의 휴머니스트적인 전통을 신봉했으며, 모든 종류의 국수주의·군국주의 및 권력정치를 강력히 거부한 셈이다.

그는 이러한 태도 덕분에 이스라엘 국가와는 점점 더 비판적 관계가 되어갔다. 청년시절에 시온주의를 지지했던 프롬은 이미 스승 라빈코프의 영향을 받을 당시부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정통 유태교와의 결별을 통해 유태 국가가 유대인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종전의 생각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물론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발로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해를 표했다. 그리하여 그는 위에서 언급한 원고에 다음과 같이 썼다.

히틀러의 권력과 홀로코스트의 악몽은 유대인들을 깊이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홀로코스트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대한 대답을 국가 건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 국가도 다른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악몽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은 권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³⁰⁾

이스라엘 건설과 관련하여,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프롬은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의 거주권 보장, 또는 이스라엘로의 귀환

29) E. Fromm, 1992r [1978], GA XI, pp.597-600.

30) E. Fromm, 1992r [1978], Ga XI, p.599.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및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평화와 화해를 촉구했다. 그는 1948년에 관한 성명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친 후에 레오 배크³¹⁾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서명과 함께 《뉴욕타임스》에 발표되었다.³²⁾ 1960년대에 프롬은 ‘중동의 새로운 대안을 위한 위원회’의 회원이었다.³³⁾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 조직들이 이스라엘 건국을 무조건 지원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프롬은 이스라엘의 정치에 대해 격렬히 비판하는 동시에 ‘공격적인 반이스라엘주의’³⁴⁾의 입장을 취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프롬의 오래된 친구들마저도 흥분할 정도였다. 1973년 이스라엘과 아랍국 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프롬은 서한을 통해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진영 폭격을 하이드리히 암살에 대한 리디체에서의 나치 보복과 비교함으로써 유대인으로서의 아마도 가장 큰 불경죄를 저지른 셈이 되고 말았다.³⁵⁾

프롬의 이러한 비판은 아랍인들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처한 여러 정치 현실 앞에서는 유지될 수 없는 유대민족의 종교적이고 휴머니스트적인 견해에 근거한다. 잠잠해지는 듯하다가도 곧 다시 불붙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증오로 점철된 갈등을 보면 유대인과 아랍인의 화해가 필수불가결하다는 프롬의 생각은 옳은 것이었다. 이제는 양측이 수용하고 준수하는 평화협정만이 적대관계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31) Leo Baeck : 1873~1956. 유대계 독일인으로,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은 이후 독일 유대인 대표자 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1943년까지 재임했다.

32) E. Fromm, 1990t [1948], GA XI, pp.523-527.

33) R. Funk, 1983, p.131.

34) S. Lundgren, 1998, p.111.

35) Darmstaedter에게 보낸 편지, S. Lundgren 인용, 1998, p.112.

평화와 군축을 위한 참여

1950~60년대에 프롬은 미국의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는 특히 1957년의 건전한 핵정책을 위한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a Sane Nuclear Policy, 즉 SANE 창립에 참여했다. 1962년에는 세계평화위원회가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평화와 군축에 대한 회의에 참여하여 미국 정부의 군비확장 정책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계획중이던 소비에트 연방의 핵실험도 강력하게 비판했다.³⁶⁾

당시에는 대부분의 서방 정치가들은 물론 여론까지도 세계평화위원회—유럽에서는 특히 마르틴 니콜러³⁷⁾, 알베르트 슈바이처, 버트란트 러셀 등이 이를 지지했지만—를 공산주의의 선전 도구 정도로 여겼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다수인 소련 및 동유럽 회원들이 자신들 정부의 군비확장 정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이 그곳에 들어가서 정당이나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의 양심과 이성 따라 목소리를 낸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 프롬은 모스크바에서 세계평화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SANE의 지휘부와의 논쟁을 벌였는데, 이는 그 회의의 편향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식적인 대표자를 파견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위의 예는 에리히 프롬이 단지 인기 있는 임상치료사이자 대학 강사일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을 깨부수고 이성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남들과의 갈등도 마다 않는, 정치적으로도 적극적으로

36) H. Jack, 1987, p.61 이하.

37) Martin Niemöller : 1892~1984.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 1933년 히틀러 정권 하에서 나치에 반대하다가 투옥되었으며, 1945년 석방되었다.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며 용기 있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프롬은 1950~60년대 강대국들의 핵무장에 대해 매우 염려했다. 또한 독일의 군사적 재무장과 아테나워의 오데르-나이세 국경에 대한 불인정 정책을 극단적으로 비판했는데, 이는 그러한 정책이 동서독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었기 때문이다.³⁸⁾ 프롬은 특히 슈트라우스를 무지막지한 권력정치가이자 ‘손가락을 핵폭탄 발사장치에 놓아 둘 것’³⁹⁾만을 요구하는 서독 보복주의자들의 대표라고 여겼다.

이와는 다른 한편으로 프롬은 전세계적인 군축통제와 두 강대국 간에 존재하는 정치적 균형을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미·소가 상대방과 타협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심리적 군축’⁴⁰⁾이다. 이는 양측의 히스테리적 증오와 불신을 종식시키고, 군대의 작전놀이 저변에 깔려 있는 편집광적인 사고방식을 없애며, 적에게는 모든 악을, 자신에게서는 선한 동기만을 투영하는 일방적 행태를 없애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⁴¹⁾ 이처럼 프롬은 냉전시대의 양 강대국 관계에도 자신의 사회심리 분석 방법을 적용시켰다.

프롬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던 모습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중에 처음에는 나치가, 그리고 나중에는 연합군이 독일과 일본의 도시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여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사실’⁴²⁾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프롬의 눈으로 볼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미군의 원

폭 투하는 현대 전쟁기술의 엄청난 파괴 잠재력에 대한 입증일 뿐만 아니라 문명국가에 존재하는 죽음애호증적 에너지의 표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은 1960년대에 핵전쟁을 미화시키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였다. 프롬은 특히 허먼 칸⁴³⁾의 저서 《열핵전쟁에 관하여》(On Thermo-nuclear War)(1960)에 극도로 죽음애호증적인, 즉 생명 적대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저서에서 칸은 국민의 3분의 1~2가 죽는다 해도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만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⁴⁴⁾ 인간적으로 느끼는 가치와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의 주장이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프롬은 다음과 같이 비판을 가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음의 결산서를 만드는 것은 1~2차 세계대전과 우리 시대의 테러 시스템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난폭해졌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양 진영에서 각각 5천만 명이 죽는 것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난폭한 행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핵전쟁이 또 다른 어떤 난폭성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도덕적 발전은 의심할 바 없이 한 사회의 도덕적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회가 집단살해와 집단자살을 지시한다면 그 안에서 유쾌적이며 기독교적인 윤리나 휴머니즘적인 윤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⁴⁵⁾

38) E. Fromm, 1966h, GA V, p.16 이하.

39) 앞의 책, p.13.

40) E. Fromm, 1961a, GA V, p.56.

41) 앞의 책, p.58 이하.

42) E. Fromm 및 M. Maccoby, 1962b, GA V, p.235 이하.

43) Herman Kahn : 1922~83. 미국의 군사전략 연구가. 1947년 랜드 연구소Rand Corp.에서 핵무기의 설계 및 전략 연구에 몰두한 바 있고, 미국의 공공정책과 국제관계를 주로 연구하는 허드슨 연구소의 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44) E. Fromm, 1961a, GA V, p.157.

45) E. Fromm, 1960c, GA V, p.236.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특히 군축과 평화정책에 관한 극단적인 발언 때문에 프롬은 종종 구약성서의 예언자들과 비교되기도 했다. 그 자신 역시 그러한 비교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청년기 때부터 프롬은 예언자들의 파멸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이사야 2:4)라는 구절을 평화로운 미래의 구현에 대한 메시지로 여기고 있었다.

프롬은 자신의 저서에서 예언자들과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관한 그들의 예언에 큰 비중을 두었다.⁴⁶⁾ 물론 그 자신도 사람들에게 결정을 요구하는 예언자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것은 냉정하게 계산된 상호파멸의 위험을 선택할 것인가—핵의 잠재력이 가진 끔찍한 영향력을 표현하는 약자는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 상호확증파괴)이다—아니면 한쪽이라도 먼저 군축의 첫걸음을 내딛음으로써 평화를 위한 시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의미였다.⁴⁷⁾

프롬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엄청난 군비확장을 계획하던 레이건과 대처의 시대에 군축을 제안하여 상호이해의 정치를 위한 새로운 자극을 준 사람은 사실 서방세계의 정치가가 아니라 공산진영의 최고 실력자였다. 이는 물론 일차적으로 휴머니즘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의 전환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소련 내부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고르바초프의 긴장완화 정책은 초기에는 국제사회에서 불신을 받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무력으로 유지되어 온 다민족국가 소련은 이후 발생한 무력대치상태로 인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그 후 몇 년 동안에 바르샤

바 조약기구는 해체되고 동유럽의 사회주의는 급속히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방국가에서는—말하자면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로서—핵의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과연 평화정책을 위한 프롬의 행동과 글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오늘날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분명히 ‘아니오’이다. 세계 도처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의 핵 대립의 위험이 줄었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다시 핵무기를 사용할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현존하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아주 조금만 사용해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파괴할 수 있게 된 상태인데도 여전히 무기창고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전쟁도 결코 아무 해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비교적 문명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유럽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옛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코소보 사태는 한 민족 집단 전체를 추방하고 체계적으로 말살했다. 걸프전 이후에도 미국은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무릎을 꿇어앉히기 위하여 우월한 공군력을 투입하여 끊임없이 폭격을 가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습이 행해졌으나, 이것으로도 밀로세비치 군대의 코소보 학살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파괴행위는 그들이 천명한 ‘인도적인’ 목표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으며, 언론에서 보도된 민간인 희생자의 수는 실제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동서 진영의 핵 대립이 종식되었다고 해서 무릎에 손을 얹고 이제 전쟁의 위협은 영원히 사라졌노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46) E. Fromm, 1966a, GA VI, p.158 이하; 1967b, GA V, p.295 이하.

47) E. Fromm, 1960c, GA V, p.213.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얼마 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유혈 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독일은 연방군을 나토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산업국가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군수물자 생산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개도국들에서는 군수물자 수입이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은 큰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면 오늘날에도 분명히 보편적인 군축, 과학적 목적 연구와 군사적 목적 연구의 분리, 군사적 생산시설을 민간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문제, 전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유혈사태의 종식 등을 촉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것임이 틀림없다.⁴⁸⁾ 요즘과 같이 좌파 정치가들조차도 군사적 행동을 보편적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프롬이 보여준 평화와 군축을 위한 휴머니스틱적인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평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박차를 가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회적 참여 민주주의

잘 알려져 있듯이 에리히 프롬은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신랄히 비판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건전한 사회》에서 이미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상세히 분석한 바 있다. 또 베스트셀러인 《사랑의 기술》과 《소유냐 존재냐》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들을 통해 그는 행복과 자아발전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관계·노동조직 등에서 발생하는 소외현상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렇다고 해서 프롬이 사회주의의 추종자였던 것은 아니다.

48) E. Fromm, 1976a, GA II, p.409 이하.

옛 소련의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보수적 산업 경영자들’⁴⁹⁾에 대한 그의 신랄한 비판을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주의가 이데올로기적 교화를 통해 ‘개별 인간들을 완전히 집단화’⁵⁰⁾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 역시 강도 높게 공격했다. 따라서 프롬은 서방의 휴머니즘적 전통이나, 마르크스가 추구한 이상과도 모두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추측하건대, 프롬은 지금까지의 경제·정치적 역사의 창고로부터 끄집어낸 그 어떤 체제를 현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삼고자 했던 것 같지는 않다.(프롬은 사회적 성격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기술한 바 있다.) 그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현재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이상’⁵¹⁾이었다. 하지만 프롬은 기존 사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에 대해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시하는 사회적 대안이나 사회심리적·정치적 변혁을 실질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프롬의 생각들을 현실과는 동떨어진 유토피아라고 너무 쉽게 거부해 버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의 다양한 정치적 활동의 배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중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인류가 심각한 핵 위협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평화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배경은 첫번째 것만큼 거창하지는 않지만 아주 진지한 것으로, 더 많은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망이었다. 당시 아직도 파시즘에 대한 경험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프롬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49) E. Fromm, 1961a, GA V, p.55.

50) 앞의 책, p.131.

51) E. Fromm, 1960b, GA V, p.40.



빈말이 결코 아니었다. 프롬에게 있어서 자유선거와 다수정당 체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결코 민주주의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여기에 ‘개인의 자유’, 즉 자아발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더해져야 한다. 이것이 ‘경제적·사회적 영역의 민주주의’⁵²⁾에서처럼 지배자에게는 편치 않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그의 주장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프롬에 따르면 경제적 영역의 민주주의는 경제가 ‘국민 다수의 안녕을 위해 사용’⁵³⁾될 때만 실현된다. 설령 자유선거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등이 보장되어 있다 해도 국민의 극히 일부만 풍요로워지고 나머지 국민 대부분은 빈곤에 시달려야 한다면 사실상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롬이 이해한 민주사회에서는 경제와 정치체제의 전통적 분리가 사라진다. 때문에 이러한 시각은 서방에서는 별로 익숙지 않고, 오히려 그 핵심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인 면에 가깝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는 생산수단이나 개별산업 분야의 민영화 또는 국영화 여부만으로 민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프롬에 의하면 한 사회가 민주적인가의 여부는 경제와 정치권력 소유자의 통제 여부, 그리고 전체 경제화 과정에 설정된 목표에 달려 있다고 한다. 프롬이 작성한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 강령 초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생산과 소비는 인간 발전의 욕구에 종속되어 있어야 하며, 그 반대가

52) E. Fromm, 1961a, GA V, p.180.

53) 앞의 책.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생산은 사회를 위한 효용의 법칙에 따라야 하며, 개인이나 기업이 이로부터 얻는 수익에 따라서는 안 된다. 휴머니즘적 사회주의란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인간이 자본을 지배하는 체제이며, 삶의 상황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삶의 상황을 지배하는 체제이다. 또한 사회 각 구성원이 스스로 생산을 계획하는 체제이며, 인간이 아닌 시장과 자본의 권력 법칙에 따라 최대 수익의 욕구 하에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체제이다.⁵⁴⁾

프롬이 말한 사회적 민주주의란 한편으로는 기업 노동자들의 참여권을 의미하는데, 이 권리는 노조 대표가 감독위원회에 참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노동자가 책임을 나눠갖고 ‘경영과의결’⁵⁵⁾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행사된다. 또한 경제권력의 집중을 막고 소비자에게 가는 유통과정 중에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제와 정치의 최대한의 분산화’⁵⁶⁾를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기업을 작은 단위로 분산하는 것’⁵⁷⁾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대중매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세뇌로 귀결되는 모든 방법들은 금지되어야 하며, 그 대신 ‘객관적인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효과적 체계를 정착시켜야’⁵⁸⁾ 한다. 마지막으로 수동적인 관중 민주주의가 능동적인 참여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기능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⁵⁹⁾으로써

54) E. Fromm, 1960b, GA V, p.31 이하.

55) E. Fromm, 1955a, GA IV, p.225.

56) E. Fromm, 1976a; GA II, p.401.

57) 같은 곳.

58) 앞의 책, p.403 및 408.

59) 앞의 책, p.309.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스스로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한다.

요약과 전망

이러한 프롬의 프로그램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다지 밝은 대답을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후로 자본주의와 그 추종자들은 더욱 큰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세계화라는 구호 아래 프롬의 생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대부분이 미국·아시아·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편, 국제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있다. 다국적 기업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으며, 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자본집중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전례 없었던 경제권력들, 예를 들어 다임러 크라이슬러와 같은 초거대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노조의 영향은 점점 약해지고 기업의 목표는 오로지 자본 소유자의 이익에만 맞추어져 있다. 또한 정치도 경제의 이익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구조조정이 더욱 빈번해지고 실업률은 급상승했으며, 산업국가에서 사회복지 수준은 낮아지고 제3세계의 궁핍은 더욱 심해졌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차 없는 자연 파괴가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주의’⁶⁰⁾라는 프롬의 생각은 사치스런 목가牧歌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물론 1960년대의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21세기가 넘어선 이 시점의 경제적·정치적 과제에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일 수

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롬을 다시 언급한 것도 아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현 시대의 최신 지식과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은 일차원적이지 않다. 지금까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반대세력도 적지 않다. 특히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국제금융시장의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가 곧 그 수명을 다하리라고 예상되기도 한다. 그 한 예는 OECD가 계획한 ‘다자간 투자협상MAI’의 도입이다. 국가보다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 서서 특혜를 주고자 의도된 이 계획은 그 초안이 여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극히 상반된 논란을 불러일으킨 후 일단 중단된 바 있다.⁶¹⁾ 프롬의 사회적 유토피아—이렇게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현실의 상황을 볼 때 인간과 지구의 운명이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점점 강하게 인식할수록 자본이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 사회적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에 의해 휘어지기는 했으나 억압될 수는 없는 모든 인간들 속에 내재한 인간성Humanum에 대한 프롬의 신뢰,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된 프롬의 사회적 유토피아는 포스트모던적 임의성 유토피아를 내세우는 다른 저자들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프롬을 현대의 고전주의자로 자리매김해 줄 것이다.

60) E. Fromm, 1961b, GA V, p.174.

61) F. R. Glunk, 1998, p.151 이하.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 Helmut Johach : 1941년 출생. 청소년 중독증 전문병원에서 사회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감독자로 활동중이다. 국제 에리히 프롬 협회 창립 멤버이며, 에리히 프롬의 삶과 작품에 관한 여러 전집에 기고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국제 에리히 프롬 협회가 발간하는 연감 《인간의 학문 Science of Man》의 편집부원으로 일을 했다. 주요 저술로는 〈분석적 사회심리학과 사회비판적 휴머니즘—에리히 프롬의 현대성〉(in: Neue Sammlung, 22. Jg.(1982), p.366-390) 등이 있고, 저서로는 《사회치료와 일상—직업적 사회활동의 윤리적이고 방법론적인 관점》(Weinheim/München: Juventa 1993) 등이 있다.

Der unbekannte Fromm. Biographische Studien, hg. von L. von Werder, Frankfurt am Main: Haag und Herchen, S. 61-69.
 Löwenthal, L., 1980: *Mitmachen wollte ich nie. Ein autobiographisches Gespräch mit Helmut Dubiel*. Frankfurt am Main: Suhrkamp.
 Lundgren, S., 1998: *Fight against Idols. Erich Fromm on Religion, Judaism and the Bible*. Frankfurt am Main/Berlin/New York: Lang.
 Wiggershaus, R., 1987: *Die Frankfurter Schule. Geschichte-Theoretische Entwicklung-Politische Bedeutung*. München/Wien: Hanser.

[참고문헌]

Bonß, W., und Schindler, N., 1982: 'Kritische Theorie als interdisziplinärer Materialismus', in: *Sozialforschung als Kritik. Zum sozialwissenschaftlichen Potential der Kritischen Theorie*, hg. von W. Bonß und A. Honneth, Frankfurt am Main: Suhrkamp, S. 31-66.
 Fromm, E.: siehe die Nachweise am Ende des Bandes
 Funk, R., 1983: *Erich Fromm. Mit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Reinbek: Rowohlt.
 Gidal, N. T., 1997: *Die Juden in Deutschland von der Römerzeit bis zur Weimarer Republik*. Köln: Könnemann.
 Glunk, F. R. (Hg.), 1989: *Das MAI und die Herrschaft der Konzerne. Die Veränderung der Welt durch das Multilaterale Abkommen über Investitionen*.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Hardeck, J., 1992: *Vernunft und Liebe. Religion im Werk von Erich Fromm*. Frankfurt am Main/Berlin: Ullstein.
 Jack, H. A., 1987: 'Die Friedensbewegung und Erich Fromm', in: